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23년 12월 31일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총 사업비의 70% 이내

남원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모든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되며, 총 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되며, 격년제로 작년에 지원받은 단지는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남원시는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 분야 공약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22년 11월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작년부터 확대해 대상에 임대아파트를 포함했으며, 지원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 세부적인 지

원항목을 삭제하고 공용부,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확대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남원시는 올해 16억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4개 단지의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권익근 주거지원팀장은 "민선 8기부터 확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8일 시가 주최하고 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원시는 시가 주최하고 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8일 오전 11시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협의회 회원들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며 깊은 은혜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날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읍면동 어르신들을 초청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식전공연 △국민의례 △쇼팽가 및 유공

자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효행 부문에서는 덕과면 신영희 님, 송동면 양혜숙 님, 노암동 오종하 님이, 장한 어버이 부문에서는 송동면 진부자 님, 유공 공무원으로는 정윤경(왕정동) 직원이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전주교대,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맺어

도농교류 활성화, 상생기반 마련

순창군과 전주교육대학교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박병춘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등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양 기관은 △예비 교원 MT와 소규모 학교 봉사 추진 △직원 연수, 워크숍, 순창투어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 △양 기관 간

협업 사업 발굴 등 상생 기반 마련 등 각 단체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1923년 전라북도 공립사범학교로 개교한 이래 2023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고 참, 사랑, 새로운 건학이념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하고 창의적인 교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병춘 총장은 "순창군과의 교류를 통해 전주대학교 직원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이번 협약

기점으로 전주교육대학교와 청정 순창군이 상호 교류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전주교육대학교와 순창군이 서로의 자원과 강점을 살려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및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2024년(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북 14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남원시는 2018년부터 7개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 남원시의 행정역량이 도내 최고 수준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 평가로,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평가, 남원시는 58개 지표 중 56개 지표를 달성하여 국정 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뒀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를 위해 주기적

인 실적관리와 전문가 1:1 컨설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실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부서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으며, 시는 이번 결과로 재정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내년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독후감 공모전 개최

남원시는 시민들의 책 읽기 문화 확산과 독서 흥미 고취를 위해 2024년 남원시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초등부(저학년), 초등부(고학년), 청소년부, 일반부 네 부문으로 나뉘어 남원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 도서는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2024년 올해의 책'으로, 초등부-저학년 '엄마는 모를걸?'(심은

지, 불벌), 초등부-고학년 '꼭 부러지게 결정받지'(송승주, 천개의비람), 청소년부 '여름을 한 입 베어물었다'(이꽃님, 문학동네), 일반부 '민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김혜남, 메이븐)이다.

참가신청서 및 독후감 서식은 남원시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독후감공모전 게시란에 게시하면 된다.

원고 분량은 초등부 A4용지 기준 1~2매, 청소년부는 2~3매, 일반부는

3~4매이다.

시민이 응모한 독후감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6명씩 총 24명(최우수 4, 우수 8, 장려 12)에게 남원시장상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수여한다. 이어 심사 결과는 오는 7월 중 시 홈페이지나 개별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mwon.go.kr/lib)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63-620-8978, 5290)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야간경관조명 (사진=임실군청 제공)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야간경관조명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임실군을 대표하는 치즈와 유제품을 테마로 조성된 유원지로 매년 약 200만명이 방문해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관광 명소이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 치즈테마파크 내 치즈캐슬 부근 약 2,500㎡ 면적에 야간경관 정원조성을 추진해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LED 전식 △

수목 투광 등 △RCB 조명 등 특색있는 조명으로 다채로운 빛 연출과, 은은한 분위기의 변화되는 조명으로 재미를 더했다. 또한 산양가족 야간조형물 등 곳곳에 야간 포토존을 마련해,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경관조명은 매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가 한층 밝아져 야간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분위기가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야간 힐링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명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임실N가곡 영화마을 축제 성료

임실군이 지난 5일 덕치면 가곡마을 일원에서 '임실N가곡 영화마을 축제'를 마을주민 및 출향민 80여 명의 적극적인 참여 속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임실N가곡 영화마을 축제는 임실N농촌축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라져가는 농촌의 전통, 자원, 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승 및 유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사진 전시를 통해 주민들과 방문객 모두 옛 향수를 느낄 수 있었으며, 영화의 한 장면을 주민들이 직접 연기하는 '나도 영화배우다' 프로그램 등 각양각색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가곡마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이장과 군수', '속부쟁이' 등의 영화 속 음식을 나눠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심 민 군수는 "임실N가곡 영화마을 축제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명 기자

남원시, 춘향제 최종 점검

남원시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 광한루원, 예촌, 요천 둔치 및 사암의 광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9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의 안전 관리, 먹거리의 품질 및 위생, 다양한 체험 활동의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장과 관계자들은 축제장 전역에서 교통, 화재 예방, 비상 대응 준비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식품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먹거리 부스를 대상으로 한 비밀 점검관 운영과 현장 신고 시스템의 운영을 재확인하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는 축제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올 제9회 춘향제는 다양한 문화 체험과 우수한 먹거리, 그리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